

한국마사회 마주 모집…신규 진입 문턱 낮혔다

윈스턴 처칠이 꿈꿨던 우승마 마주…당신도 될 수 있습니다

올해 개인·조합·법인마주 50명 모집
마주 등록요건 완화…지원자격 확대
28·29일 광주·천안 현장설명회 개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제작자, 알렉스 퍼거슨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마주(馬主)로 활동한 유명인이라는 점이다. 윈스턴 처칠이 “영국수상보다 더비 경주 우승마를 가진 마주가 되고 싶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마주는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높다. 그러나 경제력, 도덕적 품위 등 마주로서 요구하는 자격 또한 높아 일반대중에게는 상대적으로 멀게만 느껴진다.

●신규마주 진입장벽 낮혔다

한국마사회는 최근 2018년 마주 모집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개인마주, 조합마주, 법인마주 등 50명의 마주를 모집한다. 장기적으로 통합 마주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한 교차마주등록도 시행한다.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부산경남 마주로 등록해 서울 마주로도 활동이 가능하다. 개인·조합·법인마주는 10월 31일까지 모집하며, 5·8·11월로 나눠 분기별 심사가 이뤄진다. 교차등록마주는 7월4일부터 19일까지 신청 받는다.

이번 모집에서 눈여겨 볼 점은 신규 마주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경제적 요건이 완화됐다는 점이다. 개인마주의 경우 기존 재산세 400만원 이상이던 조건을 300만원 이상으로 낮



2018년 서울마주협회장배에서 우승한 ‘천지스톰’과 조창석 마주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자격조건을 완화한 2018년 마주 모집 계획을 발표하고, 개인·조합·법인마주 등 50명의 마주를 모집한다.

추었다. 말산업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농축산 단체의 마주 등록요건도 완화했다. 지원자격을 기존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에서 농협·축협·수협 중앙회 회원조합으로 확대했고, 요구되는 자기 자본 규모도 5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마주모집 현장설명회 연다

마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활동도 강화했

다. 한국마사회는 28일과 29일 이틀간 광주와 천안 문화공감센터에서 마주모집 관련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모집 관련 자유 질의응답은 물론, 홍보 리플릿을 통해 상세한 설명자료도 받을 수 있다. 5월5일과 6일에는 한국마사회 핼트런파크 서울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홍보부스도 운영한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경마는 본래 ‘왕들의 스포츠’(sports of kings)라고 불리며 마주들

의 문화에서 파생한 정통 대중레포츠다. 마주의 자긍심과 명예를 지켜나갈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길 기대하며, 마주로서 느끼는 감동과 혜택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마주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마사회 홈페이지(www.kra.co.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문의 02-509-1604(월·화 휴무)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경마 책임성·윤리경영 강화 한국마사회, 조직 개편 단행

한국마사회는 26일 경마 책임성과 윤리경영 조직 강화에 초점을 맞춰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국민신평회복과 쇠신차원에서 조직을 10% 축소하고 5본부, 2지역본부, 21실처, 11부속기관 체제로 바꾸었다.

우선 말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해 말산업본부를 선임 본부로 편제해 기능과 역할을 확대했다. 산업 재해 발생방지, 안전관리 강화, 의사결정과 제도전반 반부패·청렴경영 강화 차원의 윤리경영 전담조직도 신설했다. 경마의 레저스포츠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존 불법경마단속본부를 건전화추진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경마 건전성, 불법경마단속 및 공정경마관리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한다.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공익적 기능 강화, 내부적으로 공정성과 조직 10% 축소에 따른 효율성 확보로 국민에게 사랑 받는 공기업의 초석을 닦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정용운 기자

국내 말산업 인턴십 지원사업 실시

한국마사회가 2018년 국내 말산업 인턴십 지원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20일부터 호스피아를 통해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말산업 인턴십 지원사업은 말산업 전문 인력의 고용촉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고 한국마사회가 수행하는 사업이다. 4년째인 올해 지원대상은 80여명이다. 말산업 인력을 채용한 말산업체에는 1인당 월6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인턴십 참여와 성실한 근무 자세를 유도하고자 올해부터 취업유지 지원금도 신설했다. 근무를 시작한 지 3개월, 6개월 후에 인턴에게 지급되며 지원금은 각각 20만원, 40만원이다.

말 전용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구축

한국마사회 말보건원은 수의전문의로 ICT회사 더파워브레인스와 함께 말 전용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 처방전달시스템, 의료영상 저장전송시스템을 포함해 구성하고, 마필정보시스템과 원무행정시스템, 진단장비가 연계된 말 전문병원 맞춤형 시스템으로 개발했다. 클라우드 기반 체계를 도입해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외부에서 진료와 차트 기록, 영상촬영, 녹음기능 등이 지원돼 모바일 진료와 컨설팅이 가능하다.

편집 | 고정필 기자 ico@donga.com

천지스톰 vs 흥룡…1등급 장거리 최강마 가린다

서울 제10경주 출전마 분석

연말 대상경주인 대통령배(GⅠ)와 그랑프리(GⅠ) 출전 승점을 획득할 수 있는 Road to GⅠ 챔피언십 지정 경주가 열린다. 29일 한국마사회 핼트런파크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0경주다. 상승세가 뚜렷한 1등급 경주마들이 1800m 장거리 대결을 펼친다.

●천지스톰(수, 5세, 한국, R109, 조창석 마주, 김동균 조교사, 승률 47.1%, 복승률 64.7%)

탄탄한 실력으로 주로 대상경주에서 강자들과 겨뤘었다. 3월 서울마주협회장배(GⅢ)에서

우승을 거머쥐며 실력을 입증했다. 대통령배(GⅠ) 출전이 유력해 이번엔 Road to GⅠ 챔피언십 승점을 쌓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흥룡(거, 4세, 미국, R103, 고광숙 마주, 김대근 조교사, 승률 31.3%, 복승률 68.8%)

단거리 적성마이지만 최근 장거리에 도전하고 있다. 1800m에 3회 출전해 준우승 두 번과 3위 한 번을 했다. 데뷔 후 3위 밖으로 성적이 떨어진 적이 두 번밖에 안된다. 출전마 중 가장 높은 복승률 68.8%를 자랑한다. 경주마 적령기인 4세를 맞아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상성불매(거, 4세, 미국, R86, 김병진 마주, 박대홍 조교사, 승률 33.3%, 복승률 66.7%)

상승세가 뚜렷한 경주마다 3월 1등급 데뷔를 준우승으로 마무리했다. 경주 중반 힘이 좋아 추입이 특기다. 판리를 맡은 박대홍 조교사는 지난해 61승으로 최다승을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는 4월 들어 1승밖에 거두지 못하는 등 최근 성적이 저조하다. 이번 경주로 명예 회복을 할지 관심이 높다.

●언비터블(수, 8세, 미국, R108, 박정웅 마주, 임봉춘 조교사, 승률 12.1%, 복승률 32.8%)

출전마 중 가장 고령이다. 올해 다른 Road to

GⅠ 챔피언십 지정 경주에 3번 출전해 2번을 3위 안에 들며 성적이 좋다. 1800m 출전이 15회 이를 정도로 풍부해 이를 바탕으로 승부수를 띄울 것으로 예상된다.

●금야제우스(거, 5세, 한국, R84, 금야산업(주) 마주, 박천서 조교사, 승률 38.9%, 복승률 44.4%)

1등급 데뷔전이다. 3월 스페로, 굿해니 등 인기마들을 제치고 깜짝 우승으로 승급했다. 총 18회 출전해 네 번을 제외하고 모두 순위 상급을 획득했다. 부담중량이 52kg으로 출전마 중 낮은 편이라 유리하다.

정용운 기자



‘2인자’ 맨유, 아스널 잡고 자존심 지킬까

축구토토 승무패 16회차 중간 집계 참가자 69% “맨유, 아스널에 우세”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모(대표 손준철)가 오는 28일(토)에서 30일(월)까지 벌어지는 국내프로축구 K리그1 6경기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8경기 등 총 14경기를 대상으로 한 축구토토 승무패 16회차에서 국내 축구팬들은 맨체스터유나이티드(홍)-아스널(원정)전에서 홈팀인 맨유의 우세를 예상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투표율을 살펴보면, 맨유는 68.98%를 획득했고, 양팀의 무승부 예측과 아스널의 승리 예상은 각각 18.26%와 12.75%로 나타났다.

이번 회차 저점의 최대 분수령으로 떠오르는 맨유-아스널전은 매번 라이벌전으로 국내 축구팬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아왔지만, 이번 경기만큼은 더욱 많은 변수가 겹쳐져있다.

우선, 리그 우승을 맨시티에게 빼앗기고, 챔피언스리그 마저 탈락한 2위 맨유의 남은 목표는 자존심 유지다. 3위 리버풀(승점 71점)과 4위 토트넘(68점)에게 추격당하고 있지만,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따내기에는 큰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타이틀을 하나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오는 5월19일에 열리는 FA컵 결승인 첼시전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리그 우승의 주인이 결정된 상황에서 맨유 또한 큰 동기

부여는 없다는 뜻이다.

아스널 역시 마찬가지다. AT마드리드와 유로파리그 4강 1차전을 마친 후 맨유를 상대하는 아스널은, 곧바로 이어지는 4강 2차전을 스페인 마드리드 원정으로 치러야 한다. 따라서 아스널에게 이번 맨유전은 단순히 리그 중 한 경기에 불과할 수도 있다. 다만, 땀겨 감쪽이 치르는 마지막 라이벌전이라는 의미를 생각한다면, 동기 부여는 아스널쪽이 조금은 높다고 볼 수 있다.

올 시즌 보여준 경기력과 리그 순위는 맨유가, 현재 분위기와 동기부여는 아스널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 결과와 양팀의 분위기 등 다양한 요소를 분석해야만 이번 경기의 적중도가 가늠될 수 있을 전망이다.

K리그1에서는 울산현대(74.18%)와 전북현대(65.34%)가 각각 전남(9.81%)과 수원(12.53%)을 상대로 유리한 경기를 치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은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지난 4일에 열린 AFC챔피언스리그 멜버른빅토리전 6-2대승을 시작으로 4월 한 달간 5승2무로 패배를 잊고 살았다. 반면, 전남은 최근 10경기에서 2승2무6패로 부진하다. 최근 리그에서 서울을 상대로 8경기만에 승리를 맞췄다는 점이 유일한 위안이지만, 울산의 기세를 꺾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는 전남이다.

한편, K리그1과 EPL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축구토토 승무패 16회차 게임은 오는 28일 오후 1시 50분에 발매가 마감된다.

LG 4~5점대-삼성 4~5점대 ‘1순위’

야구토토 스페셜 25회차 중간 집계 참가자 48% “LG가 이길 것” 전망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모(www.ktoto.co.kr)는 27일(금)에 열리는 2018시즌 한국프로야구(KBO) 3경기를 대상으로 한 야구토토 스페셜 25회차 투표율을 중간 집계한 결과, 참가자의 47.55%가 LG-삼성(1경기)전에서 홈팀인 LG의 승리를 전망했다고 밝혔다. 원정팀인 삼성의 승리는 34.61%를 획득했고, 나머지 17.83%는 양팀의 같은 점수대 박빙 승부를 예상했다. 최종 점수대 예상에서는 LG(4~5점)-삼성(4~5점)이 6.34%로 최다를 기록했다.

상위권인 LG(리그 3위)와 꼴찌탈출을 노리는 삼성(리그 10위)가 잠실구장에서 맞붙는다. 리그 성적이 대변하듯이 이번 시즌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양팀이다. 가장 최근 경기였던 25일 경기에서도 LG는 넥센에게 2-1로 승리하며 5연승을 질주했지만, 삼성은 NC에게 대량 실점하며 2-9로 패했다. 이렇듯 LG는 지난 20일 NC와의 경기 이후로 안정적인 전력을 선보이고 있는 반면, 삼성은 기록 있는 전력으로 인해 승과 패를 반복하고 있다. 매 경기마다 날뛰기 하는 실정이 문제다. 삼성은 최근 승리한 19, 21, 24일 경기에서는 0, 1, 2점을 실점했지만, 패를 기록한 20, 22, 25일 경기에서는 5, 6, 9점으로

대량 실점했다. 최근 전력에 비추어 볼 때 삼성은 5연승을 질주 중인 LG를 상대로 쉽지 않은 경기를 치를 전망이다. 또 LG는 패배할 때 한없이 무너져 내리는 삼성을 상대로 안방의 이점을 살려, 대량 득점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경기다.

한편, 야구토토 스페셜 25회차 게임은 오는 27일 오후 6시 20분에 발매가 마감된다.



KBO·MLB 총 14경기 대상 야구토토 승1패 5회차 발매

국민체육진흥공단(www.kspo.or.kr)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모(대표 손준철)는 오는 5월 1일(화)에 벌어지는 한국프로야구(KBO) 5경기와 미국프로야구(MLB) 9경기 등 총 14경기를 대상으로 야구토토 승1패 5회차 게임을 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KBO에서는 1일 오후 6시 30분에 시작하는 두산-KT(10경기)전부터, 한화-LG(11경기), 삼성-SK(12경기), 롯데-KIA(13경기), NC-넥센(14경기)전까지 모두 5경기가 야구팬을 찾아간다.

메이저리그(MLB)는 클리블랜드-텍사스(1경기)전을 시작으로, 시카고-콜로라도(2경기), 보스턴-캔자스시티(3경기), 신시내티-밀워키(4경기), 마이애미-플라멩피아(5경기), 디트로이트-애틀랜타(6경기), 휴스턴-뉴욕양키스(7경기), 애리조나-LA다저스(8경기), 샌프란시스코-샌디에이고(9경기)전까지 모두 9경기가 선정됐다.

케이토모 관계자는 “양팀의 승패 및 1점차 승부를 맞히는 야구토토의 인기게임 승1패가 KBO와 MLB를 대상으로 야구팬을 찾아간다”며, “시즌 초반 팀 분위기를 고려해 각 팀들의 성적을 면밀히 파악한다면 적중도가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6일 오전 9시30분에 발매를 시작하는 이번 야구토토 승1패 5회차 게임은 30일(월) 오후 9시50분까지 게임에 참여할 수 있으며, 모든 경기가 종료된 후에 결과가 공식 발표된다.